

“공약에 안 속아” “가르치려 말라”...20대 청년, 민주당 비판

송영길 대표 ‘성년의 날’ 기념 20대 초청 간담회 부동산 문제, 실수요자가 겪는 어려움 해소 노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20대 청년들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년의 날’ 기념 20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김한미루 씨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하느냐고 놀리곤 했는데, 요즘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느냐가 더 비하하는 이야기이다”면서 “민주당은 각종 비리가 생기면 내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청년들은 정의와 공정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권주자들의 청년 공약을 언급하며 “어떤 분은 대학 안 간 사람에게 1000만원, 군 제대하면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청년들

이 더 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학 안 가면 세계여행비 1000만원’ 발언과 이낙연 전 대표의 ‘군 제대 시 3000만원 사회출발자금 지급’ 공약을 지적한 것이다.

송 대표는 성년이 된 참석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이고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여러분이 마음껏 희망을 이야기하고 앞날의 계획을 세우는 데 전념하기 힘들다는 점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91년생 딸, 95년생 아들이 있는데 저의 시간과 그들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며 “청년들의 정의와 공평은 기성세대보

다 훨씬 엄정하다. 뒷세대의 비판에 기꺼이 길을 열어주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남은 1년의 시간에 문재인 정부의 승패가 달렸다”며 “국정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면서 민심도가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큰 틀에서 정책적 기조를 유지해야겠지만 금융 부분 등에서는 실수요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며 “코로나나 손실보상 관련 법안, K반도체 전략 추진,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보완 등도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리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와 정부의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고칠 것은 고치고 당의 충고에 따를 것은 따르겠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를 맞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김오수, ‘임박노’보다 더 부적격”...법사위원장 재배분 압박

국민의힘이 1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야당 몫 법사위원장’ 주장을 폈다.

김기형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법 위에 문법이 있고, 국민 위에 전문이 있으며, 민심 위에 문심이 군림하는 독선과 오만의 흑역사를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일부 반대 여론에도 여권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단독 인준하고, ‘임·박·노’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

계에 부딪혀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문법 위에 헌법이 있고 문심보다 민심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이 씌우는 동시에,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아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읽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 임명장 장관 인사보다 더 심각한 부적격 인사”라며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코드 인사”라고 규정했다. 전 원내

대변인은 “국회는 법사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정상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막아 내고, 대화, 토론, 타협이 기본인 국회를 위해 잘못 켜진 단추를 바로 잡겠다는 심정으로 향후 국회 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간 연계 전략에 대해 “잘못된 법사위원장 배분, 그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려는 것”이라며 “여당의 입장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종인 “김동연 대선 나올 수도...드라마틱한 스토리 있는 인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목해야 할 차기 대선 주자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목했다. 김 전 위원장은 17일 보도된 이태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부총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하는데, 어떤 어젠다를 들고나오는 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부총리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듯하다”며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경제 대통령’ 얘기와 함께 (대선 주자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부총리는 ‘홍수제’에서 시작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힘을 합치는 방식 등으로 야권이 봉쇄될 것으로 예상하며 “양자 대결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고 관측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초선 의원이 잇달아 출사표를 내며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선되면 안 되는 지도부 형성에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5·18메시지 던진 윤석열, 등판 정지작업 나섰나

“5·18 현재도 진행중인 살아있는 역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놓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6일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어떤 형태의 독재나 전제, 이에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메시지는 윤 전 총장이 두 달여 만에 내놓은 정치 현안 관련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언급이 없었던 공백을 깨고 5·18 메시지를 던진 것은 결국 대선 후보 개시시점이 다가왔음을 알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장 이 같은 분석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지인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간간히 메시지를 내고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정치 입문 선언이나 특정 정당 입

당 등 공개 행보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대선 구도에 필요한 공부를 하며 ‘정중동’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등판 압박이 커지는 만큼 윤 전 총장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패하는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야권에서 윤 전 총장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과 피로도가 커질 조짐도 보이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야권에서는 다음 달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용빈 ‘5·18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은 국회의원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현장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임에도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법원은 5·18 관련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이 경합되어 유죄판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로 인정하



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중 일부는 특별재심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도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5·18 항쟁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하기 위해 죄목을 씌운 것임에도 현행법상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쟁게 해석하고 적용돼 왔다”면서 “5·18 41주년을 맞아 왜곡된 진실들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소병철, 정세균 전 총리와 여순항쟁위령탑 참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17일 순천을 찾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여순항쟁위령탑을 참배했다.

이번 참배에는 소병철 의원과 이규중 유족연합회장, 권종국 순천유족회장, 박소정 여순10·19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공동위원장, 김정화·신민호·오하근 도의원, 허석순천시장, 정홍준 시의원, 구희승 변호사, 순천유족회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정 전 국무총리는 “소병철의원과 순천·여수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번엔 범안소위를 통과했으니 빛이 보인다”며 “이번 21대 국회는 입법에 성공할 것 같다. 이번 5월에 통과됐으면 좋겠지만 흑시라도



자연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입법에 성공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중 유족회장은 “전 남지역 의원들이 행안위에 없지만 소병철 의원이 고군분투해서 안다갑고면 목이 없다. 6월달 대선에 접어들면 여순법을 잊어 버리는 것 아닐지 두렵다. 반드시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자 포장으로 점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동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칸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소라브즘,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바라본 정남 매 9억9천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은행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경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유폴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 장 비 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상가매매 (상무 치구)

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6천만원)

-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

-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항 10분 소요

010-4667-9820